최불암 별세… '파하~' 웃음 짓던 '국민 아버지'

67년간 드라마·연극·영화 아우르며 활약
'수사반장' 박영한·'전원일기' 김회장 인기
소탈한 '한국의 아버지상'… 김혜자와 '콤비'
정부 훈장 추서… 2일 발인 후 파주에 안장



'영원한 수사반장'·'국민 아버지' 최불암. 연합뉴스

한국의 아버지상을 대표해 '국민 아버지'로 불린 배우 최불암(본명 최영한)이 별세했다. 향년 87세.

최불암은 지난달 29일 밤 10시께 서울 강서구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지난해 3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2011년부터 14년간 진행한 KBS 1TV 시사교양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에서 하차했다. 이후 재활에 힘써왔으나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1939년생(호적상 1940년생)인 최불암은 인천 제물포구(당시 동구)에서 태어나 서울 중앙고와 서라벌예대·한양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다. 연출가를 꿈꿨던 그는 1959년 극단 '실험극회'에서 연극 '햄릿'으로 데뷔해 1965년 국립극단 단원으로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TV 드라마로 진출한 것은 1967년 서울중앙방송(현 KBS) 특채 6기 탤런트로 뽑혀 20대에 드라마 '수양대군'에서 노년의 김종서 역할로 출연하면서다.

이후 그는 한국형 수사물의 시초격으로 18년간 방송된 MBC '수사반장'(1971~1984, 1985~1989)의 박영한 반장, 22년간 방영된 국내 최장수 드라마 MBC '전원일기'(1980~2002)의 양촌리 김 회장, MBC '그대 그리고 나'(1997~1998)의 캡틴 박 등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며 국민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최불암은 연기 인생 67년간 드라마와 영화, 연극 무대를 아우르며 활약했다. 젊은 시절부터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라면 조연이든 노역이든 가리지 않았다.

그는 배우 활동 초반부터 주로 노역을 맡았다. 서른 살에 MBC 개국 드라마 '역풍'(1969)에서 노인 역을 소화했고, 40대부터 '제1공화국'(1981~1982)과 '제2공화국'(1989~1990)에서 80대의 이승만 전 대통령을 연기했다. '여명의 눈동자'(1991~1992), '미망'(1996~1997), '영웅시대'(2004~2005), '궁'(2006), '식객'(2008) 등인기 드라마에서도 존재감이 돋보였다.

스크린으로도 활동 반경을 넓힌 그는 '빛과 그림자'(1967)를 비롯해 '여마적'(1968), '만종'(1970), '파계'(1974), '영자의 전성시대'(1975), '왕십리'(1976), '진짜진짜 좋아해'(1978), '바람불어 좋은날'(1980), '기쁜 우리 젊은 날'(1987), '까불지마'(2004), '잠복근무'(2005) 등 수많은 영화에 출연했다.

2018년 4월엔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에 출연하며 25년 만에 연극 무대에 올랐다. 같은 해 OCN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와 '수사반장'의 프리퀄(시간상 앞선 이야기를 다룬 속편)인 MBC '수사반장 1958'(2024)에 연이어 특별 출연하며 '영원한수사반장'의 건재함도 보여줬다.

올해 5월에는 고인의 60여 년 연기 인생을 담은 MBC 다큐멘터리 '파하, 최불암입니다'가 2부에 걸쳐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당초 최불암도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활치료에 전념하고 싶다는 가족의 요청으로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다.

최불암은 잠시 방송계를 떠나 정계에 발을 들이기도 했다. 그는 1992년 통일국민당 비례대표(당시 전국구의원)로 제14대(1992~1996) 국회의원을 지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신한국당 후보로 서울 영등포구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하자 1996년 '전원일기'를 통해 다시 본업인 연기에 복귀했다.

그의 배우 인생 콤비는 단연 김혜자였다. 김혜자와는 '개구리 남편'(1969~1970)을 시작으로 '궁'(2006)까지 많은 작품을 함께했다. 특히 '전원일기'에서 22년간 진짜 부부 같은 연기를 보여줘 실제 부부로 착각하는 시청자도 많았다.

최불암은 배우뿐만 아니라 시사교양 프로그램 진행자로도 오래 활약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시사 고발 프로그램 KBS '좋은나라 운동본부'를 진행했고,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인의 밥상'을 이끌었다.

장수 드라마와 교양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시청자와 만나 서민적이고 소탈한 이미지가 강했다. 특히 고개를 젖히고 '파하~' 하고 웃는 모습이 트레이드마크가 되며 세대를 아울러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받았다.

1990년대에는 그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단편 유머집인 '최불암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배우와 방송인이 그의 웃음소리를 성대모사했다.

인간적인 매력을 바탕으로 방송계뿐만 아니라 정계, 문화계 인사들과도 친분을 쌓았다.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의 인연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최불암이 정치에 잠시 발을 들인 것도 정 명예회장의 권유 때문으로, 그가 창당한 통일국민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다. 또한 '야망의 25시'(1983)에서 청년 정주영을, '영웅시대'에서 정 명예회장의 젊은 시절을 모델로 한 천태산을 연기했다.

배우 김민자와 4년간의 교제 끝에 1970년 결혼해 평생 아내 사랑이 지극한 것으로 유명했다. 최불암은 KBS 드라마 '정동마님'에 출연하던 김민자를 보고 첫눈에 반했고, 이를 계기로 KBS로 이적해 드라마에 출연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연극 '환절기'(1968) 등을 함께하며 사랑을 키웠고 부부가 돼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발인은 2일 오전 7시 40분 비공개로 엄수되고, 오전 9시 여의도 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 집전으로 장례 미사가 거행된다. 고인을 '이모부'라고 부르며 각별하게 여기던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아베 마리아'(Ave Maria)를 노래하며 마지막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고인은 장지로 향하기에 앞서 생전 전국후원회장을 맡았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마지막으로 찾은 뒤 경기도 파주시 동화경모공원에 안장된다.

한편 정부는 최불암 배우에게 금관문화훈장(1등급)을 추서 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최불암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에게 추서 된 금관문화훈장을 유족에게 전달했다.

최불암은 2014년 11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1억장 판매 예측… K팝플랫폼 앨범

앨범 판매량 중 17.8%점유…
평균출고가도 29.3% 상승
"플라스틱 없는 앨범 주목…
CD와 경쟁하는 시대 올 것"

K팝 음반 시장이 올해 3년 만에 연간 판매량 1억장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탄소년단(BTS) 등 대형 그룹의 컴백과 '플랫폼 앨범' 확산이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달 27일 써클차트 김진우 음악전문 데이터저널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1~9월 앨범 차트 '톱 400'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760만장 증가했다. 연간 판매량은 2023년 1억1577만장에서 2024년 9328만장, 2025년 8638만장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1억장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앨범은 CD 대신 QR코드나 NFC 기술을 활용해 음악과 콘텐츠를 이용하는 음반이다. NCT 위시의 키링, 아이브의 인형, 데이식스의 이어폰 앨범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된다. CD 플레이어 없이 음악을 감상하면서 소장 욕구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전체 판매량 중 플랫폼 앨범 점유율은 2023년 11.3%에서 올해 9월 17.8%로 6.5%포인트 상승했다. 연간 판매량도 2023년 1300만장에서 지난해 1580만장으로 늘었다.

평균 출고가는 2023년 8740원에서 올해 9월 1만1305원으로 29.3% 올랐다. 기획사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부상한 셈이다. CD를 포함하지 않아 플라스틱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김진우 데이터저널리스트는 플랫폼 앨범 점유율이 머지않아 30%까지 확대돼 CD와 본격적으로 경쟁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그룹 르세라핌 미니 카메라 앨범. 쏘스뮤직 제공

'어벤져스: 둠스데이'·'듄: 파트 3' 온다

두 달 남은 올해 연말 극장가에 '어벤져스: 둠스데이'와 '듄: 파트 3' 등 기대작이 잇따라 개봉한다.

12월 16일 개봉하는 '둠스데이'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7년 만의 후속편이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악당 닥터 둠으로 돌아오고 루소 형제가 연출했다. 같은 날 개봉하는 '듄 3'은 절대 권력을 쥔 폴의 이야기를 그린다. 티모테 샬라메가 주연하고 드니 빌뇌브 감독이 연출했다.

한국 영화로는 11월 김윤석·구교환 주연의 미스터리 '폭설'과 박훈정 감독의 액션 누아르 '슬픈 열대'가 개봉한다.

올해 극장 관객은 지난 30일까지 1억446만여 명으로 1억명을 넘어섰다. 매출액도 1조795억여 원으로 지난해를 웃돌았다. '듄 3'은 아이맥스, '폭설'은 4DX 상영을 확정해 특별관 흥행에도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2일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중계방송 2027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 10:4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55 국가유산순례 드오	6:05 TV 유치원(재) 6:3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7:30 생생정보 스페셜 8:40 일일드라마 엄마가 미쳤어요(재) 9:20 일일드라마 욕망의 덫(재)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KBS 아침 뉴스타임 11:10 백수 이세돌(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가족관계증명서(재) 9:30 930 MBC 뉴스 9:50 중계방송 2027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 10:30 기분 좋은 날 11:00 베베핀 플레이타임(재) 11:1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11:45 톰토미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J방플 8:50 좋은아침 9:55 중계방송 2027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 10:40 생활의 달인 스페셜 11:00 보석이네 건강 수다	8:20 한글용사 아이야 9:20 미리 가본 대학 9:40 부모의 첫 성교육 12:10 극한직업 13:25 덩이랑 쾡이랑 인물 한국사 14:10 EBS 평생학교 스페셜 16:20 딩동댕 딩동댕 18:5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19:45 왔다! 내 손주
12:00 KBS 뉴스 12 13: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14:00 KBS 뉴스 14:10 보물섬(재) 14:40 굿 굿바이(재) 15:00 현생리뷰(재) 15:30 1989, 두 번째 봄(재)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40 영화가 좋다(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 24 15:45 도깨비 언덕에 왜 왔니?(재) 16:00 TV 유치원 16:30 세상의 모든 다큐 17:20 스튜디오 K 스페셜	12:00 12 MBC 뉴스 12:25 셰프의 DNA 13:25 뽀뽀뽀 좋아좋아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MBC 나눔 프로젝트 희망의 발걸음	12:00 SBS 12 뉴스 12:45 잔망루피 먹방 13:00 오늘부터, 인생 2막(재) 14:00 뉴스브리핑 15:30 고향이 보인다 16:00 탑클래스 17:00 JIBS 저녁 뉴스 17:10 시사이슈 결(재)	**KCTV** 9:00 KCTV 9시뉴스 9:30 문화카페 10:00 로컬여행 오정해보고 11:30 제주의 가치 재발견 시즌 7 12:30 KCTV시청자 세상 13:20 기획 - 제주바다 공존의길 14:00 책 읽어주는 나의 서재 15:20 도시재생 특별기획 17:20 네트워크 전국발굴 18:00 챌린지 퀴즈챔프 19:30 수중올레
18:00 6시 내고향 19:00 KBS뉴스 7 제주 19:40 우리말 겨루기 20:30 일일드라마 엄마가 미쳤어요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가요무대 22:55 KBS 뉴스라인W 23:35 인생이 영화(재)	18:00 경제콘서트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욕망의 덫 20:30 다큐멘터리 3일 21:30 말자쇼 23:00 아이 러브 스포츠 23:25 스모킹 건(재)	18:05 오늘N 19:05 가족관계증명서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22:50 심야괴담회 6	18:10 생방송 투데이 19:00 뉴스헌터스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활의 달인 22:00 우리들의 발라드 2 1부 23:00 우리들의 발라드 2 2부	**제주CBS** FM 93.3Mhz 90.9Mhz 7: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송인찬의 어떤가요 17:00 시사매거진 제주 17:30 CBS 뉴스룸 18:00 박재홍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TBN제주교통** FM 105.5Mhz 105.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5 달리는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2일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서두르면 화가 오니 여유가 필요하다. **48년** 경쟁자 또는 상대자로 인해 피곤. 전문직은 인정받고 일이 많아진다. **60년** 함께 모여 기쁨이나 정보를 얻게 된다. 술은 자제하고 유머가 필요한 날. **72년** 집안에 근심이 있으니 안부전화나 병원에 갈 일이 생긴다. **84년** 친구 따라 가서 반가운 소식을 접한다.

37년 궤도를 벗어난 행동을 취하면 구설이 된다. **49년** 계획한 일에 차질이 오니 다음으로 미뤄라. **61년** 좋은 조건이나 유리함이 있다고 성급한 변동, 이동 보다는 신중함이 이익이다. **73년** 문서와 관련된 업종은 꼼꼼함과 신중함 필요. 철저한 재확인 요망. **85년** 새로운 도전을 꿈꾼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38년 위장에 탈이 날 수 있으니 음식에 주의해야 한다. **50년** 집착하면 오히려 일이 막히니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함. **62년** 뜻밖에 귀인을 만나거나 행운이 따른다. **74년** 갑작스런 일에 놀라거나 걱정스런 소식을 접하니 스트레스 극히 조심. **86년** 부모님이 걱정하니 편안하시도록 전화를 드려라.

39년 방해자가 있어도 지혜롭게 극복하면 순조롭다. **51년** 만남에 참석한다. 공동의 관심사 주제를 갖고 대화를 하라. **63년**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되니 여유와 신중함이 필요한 날. **75년** 새로운 계획 창출. 의욕이 강하다. 하지만 무리한 창업이나 계약은 금물. **87년** 집중력 있는 시간대에 공부하고 휴식도 챙기길.

40년 음주는 적당히. 자녀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 **52년** 자녀를 위한 일이나 금전문제로 신경전이 생기니 미리 준비를. **64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부애정 문제에 배려 필요. **76년** 직장, 이성문제는 순조롭고 기쁨이 따르니 약속이 이뤄지면 만나라. **88년** 모임 등에서 튀고 싶어한다. 조금은 자중하라.

41년 전문성이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게 된다. **53년** 의욕에 비해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65년**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영역이 넓어진다. 개인사업자는 유리. **77년** 갈증이 많이 나니 수분 또는 야채섭취가 필요. 술은 적당히 마셔라. **89년** 인적자원이 절실하고 융통성이 없으면 대인관계를 넓혀라.

42년 남의 일에 간섭 시 구설 또는 내가 마무리를 해야하는 일이 생긴다. **54년** 이익이 발생 되고 활동도 넓어진다. **66년** 문상 또는 모임에 간다. 음식에 주의할 것. **78년** 업무량이 늘고 할 일이 많다. 하지만 업무 능력은 인정받는다. **90년** 분실 또는 건망증이 올수 있다. 외출시 물건, 지갑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43년 신경계통 또는 시력이 떨어지니 운동도 필요하다. **55년** 상대가 나의 능력을 믿고 인정해주니 이럴 때일수록 책임완수가 필요하다. **67년** 과장된 말로 상대를 제압하려다가 들통이 날 수 있다. **79년** 자신이 생기고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점차 노력한다. **91년** 행복도 불만도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

44년 사업장이나 활동에 능률이 저하되거나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56년** 음식업이나 손으로 하는 업은 인기가 많다. **68년** 활동량이 많아지고 생산이 증대되니 또한 기쁘다. **80년** 경쟁하지 마라. 자존심이 상한다. 이겨도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92년** 무리한 활동이나 운동으로 이상이 오거나 근육통이 생긴다.

45년 건강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도난을 조심하라. **57년** 영업에 이익이 있고 동업자나 친구가 생기기도 한다. **69년** 반길·반흉이 있으니 오후 늦게 약속이 생기면 정중히 거절하라. **81년** 친하던 친구와 사소한 일로 불화하거나 이성간에 의견 마찰로 헤어짐도 있다. **93년** 친구들 문제로 마음 상하고 고민이 많다.

46년 능력은 있어도 주변에서 나를 몰라준다. 인덕을 한탄한다. **58년** 가까울수록 예의와 신용이 중요하니 친하다고 막말을 하면 신뢰가 추락. **70년** 경거망동은 금물이니 윗사람에게 공손하라. **82년** 취업이나 시험에 불리하니 중요한 사안은 다음으로 연기하라. **94년** 친구와 함께 나눠 먹을 일이 생긴다.

47년 문상, 병문안 갈 일이 생긴다. 술은 자제 필요. **59년** 부족함을 채우려고 갈망한다. 이성, 직업에서는 무난하다. **71년** 직접투자로 사업장을 갖고자 한다. 주변에서 자문을 구하라. **83년** 분실 또는 건망증이 올 수 있다. 외출시 중요한 것은 두고 가라. **95년** 집안에 할 일이 많아지고 좋은 소식도 온다.